

- 주요 뉴스: 미국 주요 은행, 테이퍼링 시행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대비
 - 미국 재무장관, 민간 금융기관에 기후 관련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
 - ECB 은행감독위원장, 은행권은 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수용하기 시작
 - 호주 중앙은행, 국채 수익률 통제를 중단. 기준금리는 0.1%로 동결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3대 주가지수가 신고가 경신. 다우지수는 36,000 돌파
주가 상승[+0.4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1bp]
 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실적 호조, 원자재 관련주 강세 등으로 나흘 연속 상승
 유로 Stoxx600 지수는 헬스케어 관련주의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FOMC에서의 테이퍼링 시행 발표 전망 등이 배경
 유로화 가치는 0.2% 하락, 엔화는 강보합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소극적인 금리인상 전망 가능성 등이 반영
 독일은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7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9.7원, +4.2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1/2일	11/1일	전일대비			11/2일	11/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630.7	4,613.7	0.37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5%	1.56%	-1bp
	유럽	479.53	478.87	0.14%		독일	-0.17%	-0.10%	-7bp
	중국	3,505.6	3,544.5	-1.10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521	29,647	-0.43%		중국	48bp	47bp	1bp
	한국	3,013.5	2,978.9	1.16%	위험 지표	EMBI+	-	381	-
환율	달러지수	94.11	93.88	0.25%		VIX	16.03	16.41	-2.32%
	유로화	1.1579	1.1606	-0.23%		WTI유	83.91	84.05	-0.17%
	엔화	113.96	114.00	0.04%	원자재	구리	436.9	439.4	-0.57%
	위안화	6.4000	6.3977	-0.04%		금	1,787.8	1,793.3	-0.31%
	원화	1,174.4	1,176.5	0.18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주요 은행, 테이퍼링 시행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대비

- 이번 주 예정된 FOMC에서 테이퍼링 시행 발표가 확실시. 주요 은행들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(금리 상승 등)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전반적인 경영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
- 특히 2013년 발생했던 테이퍼링 탠트럼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. BofA는 채권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유동성 불안이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. 실제로 다수의 은행은 FOMC를 앞두고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강조
- 다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탠트럼의 재발 확률이 낮은 것으로 평가. 오히려 일부에서는 테이퍼링 시행이 확정되면,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관련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수익 창출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재무장관, 민간 금융기관에 기후 관련 투자 확대를 요청할 계획

- 옐런 장관은 민간 금융기관들이 기후 분야에 좀 더 투자를 늘리도록 촉구할 방침. 재무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

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, 중국의 해외 철강 생산을 겨냥한 법률 제정이 필요

- 타이 대표는 중국이 동남아 지역 등지에서의 철강 생산을 통해 원산지를 바꾸고 대중 무역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에, 이를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

■ 미국 증권거래위원장, 보다 공정한 채권시장을 조성할 방침

- 겐슬러 위원장은 중요한 가격정보를 좀 더 많은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. 특히 채권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일부 투자자들은 사전 매매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데, 더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

■ COP26, 2030년까지 산림 파괴 중단. 메탄 배출은 30% 감축

- 미국과 EU 등 100여개 국가의 대표들은 해당 기간에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설 것을 합의. 메탄 배출은 2020년 대비 30%로 줄이기로 선언

■ ECB 은행감독위원장, 은행권은 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수용하기 시작

- 엔리아 위원장은 은행들이 마침내 저금리 장기화라는 새로운 여건에 맞춰 사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. 한편 부실대출이 최소한 2022년 하반기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

■ 국제금융협회(IIF), 10월 신흥국 금융시장에 자금 유입. 긴축정책 등이 영향

- 신흥국에 249억달러의 자금이 유입. 채권과 주식 부문 규모는 각각 201억달러와 48억달러. IIF의 Jonathan Fortun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인지가 향후 자금 유입 지속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

■ 중국 정부, 서비스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

- 국무원은 숙박, 보육, 케이터링,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.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해당 사업체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, 지방정부는 세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

■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,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을 강조

- 다수의 위원들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지만, 일본은행은 강력한 통화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. 일부 위원들은 물가 목표 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언급

■ 호주 중앙은행, 국채 수익률 통제를 중단. 기준금리는 0.1%로 동결

-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0.1%로 제어하는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. 시장에서는 이를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평가. 로우 총재는 2023년 금리인상도 타당하지만,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24년이라고 발언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11/2 현지시각 기준)

- 유로존 10월 마켓 제조업 PMI: 58.3, 9월(58.6), 속보치(58.5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FOMC, ECB 라가르드 총재 강연, 미국 10월 ISM 서비스경기지수
- 미국 10월 ADP 민간고용, 9월 공장수주, 중국 10월 차이신 서비스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, 금리인상 결정은 시기상조 - Financial Times

(The Bank of England should not raise rates yet)

- 이번 주 예정된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한 상황.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기 회복 저해 우려의 충돌에 기인. 하지만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15bp인상은 양분된 의견 모두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
-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, 현재는 부분적인 임금인상이 광범위하게 전이 되는지, 내년 계획된 세금인상이 성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인지, 코로나 19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
-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지만, 금리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불필요. 오히려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자산매입 축소, 양적완화 종료, 만기채권 재투자 중단 등의 조치가 더 효과적일 가능성

■ 각국의 자동차 공급 부족,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- The New York Times

(How Car Shortages Are Putting the World's Economy at Risk)

-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인 자동차 생산의 부진은 이에 의존하는 국가의 일자리 등에 타격. 반도체 공급난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의 부정적 여파를 두고, Pantheon Macroeconomics의 Ian Shepherdson은 성장과 고용의 걸림돌이라고 지적
- 각국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공급 차질은 철강 등 여타 업종에도 파급. IMF는 자동차 공장 폐쇄로 인한 실업상태가 수년간 지속된다고 분석. 자동차 산업의 생산 및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,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커질 전망

■ 탄소세 부과, 기존의 무역관행 및 산업 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소지 - WSJ

(Tariffs to Tackle Climate Change Gain Momentum. The Idea Could Reshape Industries)

■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, 연준의 효과적 해결책 제시는 어려운 과제 - 블룸버그

(What If Inflation Today Is Out of the Fed's Control?)

■ 중국의 벤처캐피탈, 규제 강화에도 성장 복원력은 지속 - WSJ

(Venture Capital Hasn't Given Up on China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